

# 모든 선교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본문	누가복음 2:8~14
요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1절).
찬송	112장 (그 맑고 환한 반 중에)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과의 목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최고의 선교사였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

## I. 생각하기

1.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을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최고의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 II. 생각 넓히기

### 1. 최고의 선교사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면서,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성도들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탄절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특별했던 인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의 한 사람, 초능력자, 사회적 혁명가, 탁월한 랍비 (교사), 훌륭한 영적 지도자와 같은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것들 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주시는 분,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한 가지 단어나 설명만으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기록한 모든 것들이 나름의 합당한 이유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개 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교사의 본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혹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정한 일을 위해 부름 받았던 선지자나 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배를 타고 당시 앗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도록 선택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그는 선교사였습니다. 요나와 같은 역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차원이 다른 선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선교사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최고의 선교사로 남아 계십니다.

## 2. 예수님의 선교의 시작: 성육신

예수님께서 최고의 선교사인 이유는 그분의 선교 사역이 성육신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빌 2:6),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 놓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오신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크고 깊은 차원의 차이를 뛰어 넘으신 것입니다. 문화적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결국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과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차이를 감내하신 결단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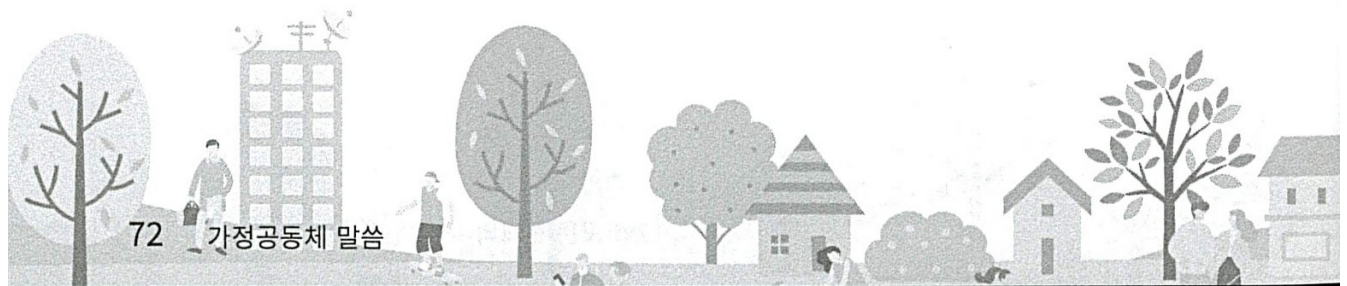
희생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이 인간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선입견과 편견을 깨고 이 세상에 오셔서 땅을 밟으시며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충격과 함께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담긴 의미는 그동안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방식에 고스란히 적용되어 왔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어나 라틴어를 가르쳐서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현지의 문화와 관습을 고려해서 성경의 내용이 문자적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통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현지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그들의 말을 배우면서 그들 중의 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복음의 현지화와 선교사의 삶의 현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성육신의 본을 따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무명의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 3. 예수님의 선교의 마지막: 십자가

성육신이 예수님의 선교의 시작이었다면, 마지막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분의 마음을 가장 잘 집약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본래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당시에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들은 대개 노예이거나, 도적, 사람을 죽인 암살자, 제국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신 21:23).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 십자가는 전혀 다른 상징이 되었습니다.

먼저,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의 상징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이 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당하고 억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히 4:15)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 및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연 현상까지 통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자기 부인과 희생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선교를 하는데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선교전략, 혹은 잘 지어진 건물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한 사랑과 희생적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 본을 보이신 사랑과, 십자가를 통해 증명하신 희생의 정신이 궁극적으로 선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은 지난 선교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선교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의 본을 따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선교전략은 없습니다.

#### 4. 온 인류를 위한 선물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와 미주리 브랜슨에는 ‘사이트 앤 사운드’ (Sight & Sound)라고 하는 극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성경 스토리를 뮤지컬로 각색해서 무대에 올리는데, 이 맘 때에 볼 수 있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작품입니다. 맨 처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대화를 주고 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끊이지 않는 죄인들의 타락이 넘치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심판이 임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땅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겠다고 제안하십니다. 자신이 죄인들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무대가 바뀌고,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뮤지컬이



진행되면서 목수인 요셉이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고, 나중에는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도 무대 위에 등장합니다. 하늘에서는 찬란한 별빛이 비치고, 말구유에서는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어린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마리아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품에 안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뮤지컬이 마감되는 것으로 관객들이 생각하는 순간, 마리아가 몸을 돌려 아기를 안은 채로 관객을 향해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선물을 열어보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소식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크리스마스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누리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선교사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단 한 가지 목적은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0).

### III. 생각살기

1.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셨던 것과 같이, 이번 성탄절에 어떻게 하면 자신이 가족이나 이웃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2. 미국에서 성탄절은 점점 더 예수님이 없는 휴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본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